■ 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5-82.
http://doi.org/10.17948/kcs.2022..95.45

구암학 연구의 자료 범위와 한국유학사에서 구암 이정의 역할

정우락(鄭羽洛)*

목 차

1. 머리말
2. 자료 범위와 『구암전서』
3. 구암학 연구의 부진 원인
4. 한국유학사에서의 역할
5. 이정이 이룩한 성과 및 의의
6.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국역 『龜巖全書』 제작에 즈음하여, 龜巖學 연구를 위한 자료의 범위와 龜巖 李楨(1512-1571)이 한국유학사 발달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던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정과 관련된 자료를 『구암집』을 중심으로 밝힌 뒤, 여기에 기초하여 구암학 연구의 부진 원인, 이정이 한국유학사에서 수행했던 역할, 道統 정립을 위한 노력 등을 두루 다루었다. 이것은 한국유학사에서 거의 잊혔거나, 잊힐 뻔한 이정을 우리 시대에 다시 소환하여, 그에 대한 학술사적 복권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정은 이황과 함께 中庸學을 바탕으로 도학을 추구하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20여 종의 성리서를 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악정사와 옥천정사를 세워 존현양사를 주도했다. 조선의 지성사는 이로써 새로워질 수 있었으며, 도통 역시 명확해 질 수 있었다. 즉, 堯舜이 전한 심법이 공맹과 주자를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져, 김굉필→이언적→이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였다. 이로써 사람들은 이정이 이황과 깊은 사우관계를 맺고 있었으니, 이황의 도통이 이정에게 전해진다고 믿기도 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정의 퇴계학파 내에서의 위상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이황이 이정에게 보낸 편지가 140여 통에 이르며, 『도산급문제현록』에 기재된 309명의 제자들 가운데 鄭之雲, 李湛에 이어 세 번째로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이정은 퇴계학파에서 선진 제자였으며, 이황과는 학문적 동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황 스스로도 자신의 학단에서 기대승과 이정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판단하였다. 그들을 重厚하고 仁에 가까워 길을 따르며 궤도를 지켜서 반드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본고에서는 이정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시도하고자 했다.

주제어: 구암 이정, 『구암전서』, 구암학, 이황, 퇴계학파, 위상, 학술사, 중용학, 성리서 발간, 서원 건립.

1. 머리말

이 논문은 국역 『龜巖全書』 제작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1] 龜巖 李楨(1512-1571)은 누구인가. 이를 해명하기 위한 노력이 2000년부터 이정의 고향인 사천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주제별 문제의식은 대체로, '龜巖學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황과 조식 사이에서 이정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당대의 학문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정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던가', '영남학파 분기의 계기가 되었던 晉州淫婦獄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의 현실에

1) 이 글은 국역 『구암전서』 편찬에 즈음하여, 구암 이정이 한국유학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가 이룩한 성과는 또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를 두루 다룬 것이다. 국역 『구암전서』 편찬은 구암 이정과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를 현재의 시점에서 모두 찾아 질서화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 구암학 연구 자료가 200자 원고지 14,500매에 갈무리되었다. 이 일은 사단법인 龜溪書院大觀臺儒契會에서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연구책임자 정우락)에 의뢰해 이루어졌으며,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진행되었다.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던가' 하는 것 등이었다.[2)]

이정의 성리학적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사회적 확산은 조선의 유학사적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간 『龜巖集』의 자료적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텍스트 비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사승관계에 따른 학문적 수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 연구사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구암학 연구를 위한 일체의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그것을 번역해 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다. 『龜巖全書』의 제작과 번역은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실천이다.

이정은 본관이 東城[泗川]으로, 자는 剛而, 호는 龜巖이다. 그는 한미한 재지사족 출신으로서 아버지 贈戶曹參判 李湛(1487-1550)과 訓導 鄭賢孫의 따님인 晉州鄭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날은 12월 23일이었고, 태어난 곳은 사천군 사천읍 구암리였다. 구암리는 이정의 조부 李二蕃이 진주의 서쪽 車衣村에서 사천 북쪽으로 이사해 살았던 곳이다. 이정은 이곳에서 출생하여 내외관직을 역임한 후 이곳에서 세상을 뜬다.

鄭斗(?-?)는 이정의 行狀에서, "선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침착하고 꿋꿋하며 단정하고 진실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어른스러운 국량이 있었고, 장성해서는 학문으로 빛이 났으며, 평소 말을 빨리하거나 당황해하는 기색이 없었고, 비록 한집안 사람일지라도 기뻐하거나 성냄을 본 적이 없었다."[3)]라며 이정의 기본적인 인품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행장이 으레 그러하듯, 기본적으로 대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 그의 전반적인 사람됨을 이해하게 된다. 우선,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가학을 바탕에 두고 약관에 魚得江(1470-1550)과 宋麟壽

2) 정우락, 「龜巖 李楨 연구의 반성적 모색」,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3, 참조.

3) 鄭斗, 「行狀」(『龜巖集』 권2), "先生, 生而沉毅端慤, 不妄言笑. 自幼, 有老成之局, 及長, 文之以學問, 平生無疾言遽色, 雖家人, 未嘗見其喜怒."

(1487-1547), 그리고 周世鵬(1495-1554)과 사승관계를 맺고, 李滉(1501-1570) 및 曺植(1501-1572) 등과는 사우 관계를 맺으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정의 학문적 기반은 할아버지 李以蕃, 아버지 李湛을 중심으로 한 가학이 바탕이 되었으며, 20대에 섬긴 두 스승 송인수와 어득강은 그의 학문 세계를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송인수의 사림파적 기질과 어득강의 문학적 취향이 그의 일생에 있어 중요하게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세붕, 이황, 조식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유하면서 성리학적 학문 세계는 더욱 깊어졌고, 그의 교육 활동과 함께 유학사적 문제의식 역시 한층 예각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외직을 두루 거치지만 주로 외직을 통해 학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정은 별시 문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후 軍器寺主簿를 시작으로 司憲府監察, 承政院承旨 등을 역임한 후 六曹의 參議 등 내직을 두루 거친다. 그리고 영주·선산·청주·경주·순천의 수령 등 외직을 맡아 선정을 베풀었다. 許穆(1595-1682)은 묘갈명에서 이를 두고, "공은 처음 벼슬을 시작하면서부터 돌아가신 해까지가 무릇 36년인데, 외직에 계신 것이 19년이고, 혹 實職 없이 지내거나, 혹 상주로 지내거나, 혹 병으로 사절하였던 것이 13년이며, 조정에 계신 것은 겨우 4년이었다."[4]라고 한 바 있다. 특히 외직을 통한 지방 행정 수행은 그의 학문적 역량을 심화시키면서 한국유학사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퇴계학과 남명학을 동시에 수용하는 회통적 세계 지향을 보이면서도, 이황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다는 점이다. 비록 조식과 진주음부옥으로 인해 절교한 후, 이들 3인의 역학관계가 현저히 달라지게 되지만 이정은 이들과 오랫동안 교유하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였다. 30세(1541)에 榮川[영주] 군수로 부임하여 이황과 만나거나, 47세(1558)에 조식과 두류산을 유람한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

4) 許穆, 「龜巖李先生碣銘」, 『記言別集』 권25, "公自初筮仕, 至歿之年, 凡三十六年, 居補外者十九年, 或置散, 或遭哀去官, 或謝病家居者十三年, 立朝僅四年." 그러나, 이정의 환력을 실제로 조사해 보면 외관에 보임된 것이 13년, 京官으로 재직한 것이 7년으로 나타나 허목이 말한 것보다 더 길다.

인 성과가 그의 中庸學[5]과 「神明舍賦」[6] 등에 적실히 나타난다. 성리학의 핵심과 敬義學의 실천성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넷째, 서원 건립과 성리서 발간을 통해 조선의 유학사를 재구성하는데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이정은 49세(1560)에 慶州府尹이 되자, 仙桃山 기슭에 서악정사를 창건하여 薛聰(655-?)·金庾信(595-673)·崔致遠(857-?)을 향사하고, 53세(1564)에는 순천부사가 되어 玉川精舍를 건립하여 金宏弼(1454-1504)을 추모하였다. 도학을 강명하면서 尊賢養士하자는 이러한 노력은 성리서의 출판과 보급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7] 허목이, "송나라 이후의 여러 선유들의 도학서가 우리나라에 크게 전파된 것은 공[이정]이 처음 간포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8]라고 한 발언에서 이러한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상의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구암학의 자료 범위와 그가 한국유학사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였던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정 관련 자료를 『구암집』을 중심으로 밝히고, 여기에 기초하여 구암학 연구가 부진하였던 원인, 이정이 한국유학사에서 수행했던 역할, 도통 정립을 위한 노력 등을 두루 다루고자 한다. 이는 한국유학사에서 거의 잊혔거나 잊힐 뻔한 이정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소환하여 그에 대한 학술사적 복권을 시도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를 통해 구암학 연구가 본격화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 자료 범위와 『구암전서』

역사적 인물 이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양하다. 이들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정에 '의한' 자료와 이정에 '관한' 자료가 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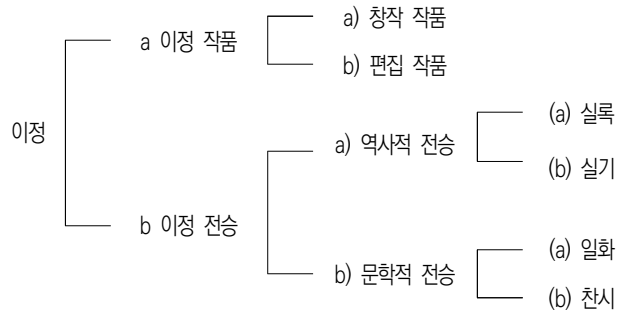
5) 이 방면에서의 논의는 정우락의 「『中庸』이 구암 이정의 문학에 미친 영향」,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과 이세동의 「구암 이정의 중용학」,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에서 이루어졌다.

6) 이 방면에서의 논의는 이상필의 「龜巖 李楨의 學問 標的—「神明舍賦」의 분석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7에서 이루어졌다.

7)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4장, '한국유학사에서의 역할'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8) 李楨, 「龜巖李先生碣銘」, 『龜巖集』 권25, "宋以來諸儒道學之書, 大傳於東, 自公始刊布."

것이다. 전자는 이정이 직접 창작한 것이니 '이정 작품'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타자가 이정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한 것이니 '이정 傳承'이라 할 수 있다. 이정의 작품은 다시 창작한 것과 편집한 것으로, 이정 전승은 다시 실록 및 실기를 포괄하는 역사적 전승과 일화 및 讚詩를 포괄하는 문학적 전승으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자료가 모두 이정을 향해 있음은 물론이다. 구암학의 재구성은 이들 자료를 통해 가능하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정의 창작 작품(이정-a-a)은 『龜巖集』에 갈무리되어 있다. 현전하는 『구암집』에는 1641년(인조 19)에 간행한 원집 初刊本, 1749년(영조 23)에 간행한 속집 초간본, 1902년(고종 6)에 원집과 속집을 다시 간행하면서 별집을 추가한 重刊本[9]이 존재한다.[10] 이러한 사실은 이정의 창작 작품을 모으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목이, "지금 공이 남긴 글은 훼손되어 없어지고, 전쟁 통에 흩어져 없어졌지만 요행히도 남아 전하는 것이 겨우 열에 두셋 정도이다. 泗川 지역의 여러 유생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조금도 변치 않으면서, 한마디 말씀과 하나의 글자라도 후세에 귀중하게 여길 만한 것이라고 여겨, 없어지지 않게 할 방법을 강구하여 장차 판각을 하려고 하였다."[11]라고 한 데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현

9) 이 중간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영인한 『한국문집총간』 33집에 수록되어 있다.
10) 원집 2권 1책(서 趙絅, 발 許穆)은 許穆이 교감하였고, 속집 2권 1책(발 어유성)은 魚有成이 교감하였으며, 중간본 6권 3책(서 李晩燾, 발 李種杞)은 별집과 함께 간행되었는데, 후손 李泰煥·柳震台 등이 참여하였다.

전하는 중간본에 의거해 이정이 직접 창작한 작품의 규모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원집(2권 1책): 시 117수(오언절구 32수, 오언율시 3수, 오언고시 3수, 칠언절구 60수, 칠언율시 17수, 칠언고시 2수), 기 1편, 계사 3편, 차자 2편, 소 1편, 전 1편, 지 3편, 제문 1편, 찬 2편
- 속집(2권 1책): 시 193수(오언절구 29수, 오언율시 24수, 오언고시 3수, 육언절구 1수, 칠언절구 109수, 칠언율시 25수, 칠언고시 2수), 書 1편, 사부 7편, 기 1편, 전 2편, 잡저 1편, 제문 1편, 묘갈 6편, 발 1편
- 별집(2권 1책): 시 1수, 書 5편, 발 3편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정의 창작 작품은, 시 311수, 기 2편, 계사 3편, 차자 2편, 소 1편, 전 3편, 지 1편, 제문 2편, 찬 2편, 書 6편, 사부 7편, 잡저 1편, 묘갈 6편, 발 4편이다. 중간본은 편집·간행 과정에서 기존의 초간본과 체계 및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12] 즉, 중간본에는 盧守愼(1515-1590)이나 尹春年(1514-1567) 등 다른 사람의 작품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居業錄要語』(전남대 소장)의 발문, 『醫無閭先生集』(일본 봉좌문고 소장)의 발문, 『孔子通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識文, 『唐鑑』(고려대 소장)의 지문 등 이정의 글들이 다수 빠져 있기도 하다.

둘째, 이정의 편집 작품(이정-a-b)은 세 종류인데, 『性理遺編』·『景賢錄』·『壽瑞詩』가 그것이다. 『성리유편』은 『性理群書』와 『性理大全』 가운데 공부에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뽑아 순천부에서 간행한 것이다. 『경현록』은 金宏弼과 曺偉(1454-1503)가 순천으로 귀양온 것을 기리는 한편, 이들의 도학

11) 許穆, 「龜巖文集跋」, 『記言』 권8, "今其遺編殘缺, 而幸傳於兵亂散失之餘, 僅卜存二三, 泗上諸生, 尊慕之不衰, 凡片言隻字, 爲可貴重於後世者, 謀所以不泯而將剞劂之."

12) 중간본은 기존의 것에서 크게 변경되고 조정되었다. 원집의 경우, 초간본의 부록 부분 이하를 권2로 분권하였으며, 시는 시체의 명칭을 수정, 문은 문체별로 세분하여 재정리하는 등, 편차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황과의 관계로 인해 초간본의 「祭退溪文」이 중간본에서는 「祭退溪先生文」으로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변경이 이루어졌다. 속집과 별집의 경우도 원집의 중간 방식을 대체로 준용하였다. 부록 이하를 2권으로 분권하는 것과 문을 부분적으로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수록 순서를 재조정하였기 때문이다.

정신을 숭상하기 위해 역시 순천부에서 간행한 것이다. 『壽瑞詩』는 간행처를 알 수 없으나, 姜孟卿(1410-1461)이 李嵫(1372-1495) 부부의 70년 偕老를 기려 七言古詩로 짓자, 후대의 명사들이 이 시에 和次韻하였던 바, 이를 이정이 묶어 간행한 것이다. 이자는 바로 이정의 6대 조부였다. 이 가운데 『성리유편』에 대하여 이정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 일찍이 『性理群書』와 『性理大全』을 읽으면서 부지런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노둔하고 졸렬한 데다 기억력마저 없었다. 삼가 두 권의 책 가운데서 贊·銘·箴·詩·序·記·說·賦·論·行實 등 여러 편을 가려 뽑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는 대개 빠뜨리고 잊어버릴 것을 대비하여 경계하고 살피기 위해서이다. 손에서 놓지 않고 입에서 그치지 않아 詠歎하는 데 흠뻑 빠져 때로는 손과 발이 춤추는 것도 알지 못해 저절로 그만둘 수가 없었다.[13]

『성리유편』은 1책으로 구성된 목활자본으로 1564년(명종 14)에 간행한 것이다. 위의 글은 이정이 쓴 발문인데, 이에 의하면, 이정이 周敦頤(1017-1073) 등 송대 성리학자들의 글을 읽고 잊어버릴 것을 대비하기 위해 『성리유편』을 간행하였다고 한다.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이치를 깨달으면서 高明正大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조선 땅에 성리학을 편 김굉필과 조위를 특별히 기려 『경현록』을 편찬하는 한편, 6대 조부 이자와 강맹경의 고사를 떠올리며 『수서집』[서 李賢輔, 발 李滉]을 엮어 효심을 보이기도 했다.

셋째, 이정의 역사적 전승(이정-b-a)은 관찬사서 및 다양한 문집 속에 전한다. 즉,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 등의 관찬사서, 『慶州邑誌』와 『順天府邑誌』 등의 地誌類, 『구암집』 소재 「행장」이나 「묘갈명」 등의 기사 자료, 奇大升(1527-1572)의 『論思錄』과 黃胤錫(1729-1791)의 『頤齋亂藁』 등 당대 혹은 후대의 문헌에 소재한 기사 전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역사적 전승 속에는 이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를 객관적으로 이

13) 李楨, 「性理遺編補錄跋」, 『龜巖集』 권1, "嘗讀性理羣書及大全書, 竊有拳拳欲學之心, 而魯莽鈍劣, 苦無記性. 謹拈出兩書中贊·銘·箴·詩·序·記文·說·賦·論·行實諸篇, 彙爲一帙, 盖所以備遺忘而寓警省也. 手之而不釋, 口之而不輟, 咏歎淫泆, 時或有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 而自不能已也."

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 일부를 들어보자.

① 李楨은 자가 剛而이며 호는 龜巖으로 사천 사람이다. 우리 중종 대왕 때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성품이 단정하고 성실하였으며, 너그러웠지만 엄격했다. 만년에 퇴계 선생의 문하에 드나들어 도를 믿음이 더욱 독실하였다. 고을을 맡아서는 학문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다. 今上[선조] 초기에 副提學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권면하고 경계하는 여러 말씀을 올렸다. 龜巖精舍를 지어 강학에 부지런하였으며, 벼슬은 慶州府尹에 이르렀다.14)

② 진주에 사는 李楨 剛而는 내가 젊은 날 사귄 친구이다. 비록 학력은 없지만 함께 어울리며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전날 벼슬을 버리고 간 뒤로는 보지 못한 지가 칠팔 년이 되었다. 지금 淸州牧使가 되어 올라온다며 사람을 보내 만나자는 뜻을 전해 왔으나,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아 가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 안타깝다.15)

앞의 자료(①)는 權文海(1534-1591)가 『大東韻府群玉』 「下平聲・第八庚韻」에서 이정을 평가한 글이다. 여기에는 이정의 장원 사실과 함께 성실하면서도 엄격한 성격, 독실한 이황의 제자, 구암정사 건립과 강학 등 핵심적인 부분을 간추려 말했다. 뒤의 자료(②)에서는 이정을 들어 학력이 없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하였다. 이처럼 역사적 전승에서는 이정에 대한 평가가 다채롭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주음부옥과 관련된 조식과의 절교 사실이 다양한 각도에서 언급되고 있어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이룬다. 이것은 진주음부옥이 당대 사대부 사회는 물론이고 조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매우 뜨거운 주제였기 때문이다.

넷째, 이정의 문학적 전승(이정-b-b)은 일화나 타인의 문학 작품 속에 주

14) 權文海, 「八庚」, 『大東韻府群玉』 권7, "李楨, 字剛而, 號龜巖, 泗川人. 我中廟朝擢魁科, 性端慤寬嚴, 晩遊退陶門下, 信道益篤, 莅郡以興學爲己任. 今上初拜副提學, 不起, 陳勸戒千百言. 築龜巖精舍, 講學不倦, 官至慶州府尹."

15) 洪仁祐, 「日錄鈔・壬子」, 『恥齋遺稿』 권2, "十三日, 晉州居李楨剛而, 乃吾少時交也. 雖無學力, 可與爲善者, 嘗棄官去, 不見七八年. 今以淸州牧使上來, 適伻通欲見之意, 余以兒病未差, 不得往話, 可恨."

로 등장한다. 기실 문학적 전승은 설화와 문학 비평 속에 많이 나타나지만, 이 방면에 있어 이정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다. 설화의 경우, 2013년 사천시에서 최남기로부터 제보받은 것이 있기는 하나, 장원급제 이후 이황과 이정의 師弟之情을 중심으로 구술하였을 뿐이다. 이에 의하면, "둘이 회포를 풀고 뒷날 헤어지면서 쓴 시가 있다. 도산서원 입구에 가면 석간대 시라고 있다."라 했다. 이러한 문학적 전승은 이정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가능케 하기도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도산서원 입구의 石澗臺 시와 이에 대한 이정의 차운 시는 다음과 같다.

① 그대 떠나니 뉘와 함께 봄산을 노닐까	君去春山誰共遊
새 울고 꽃 지고 물은 홀로 흐르네	鳥啼花落水空流
오늘 아침 물가에서 그대를 보내노니	今朝送別臨流水
다른 날 서로 그리우면 물가에 다시 오리	他日相思來水頭[16]
② 오호라, 어느 해나 이 놀이 계속할까	堪歎何年續此遊
한 봄의 심사가 푸른 강물에 흘러가네	一春心事碧江流
냇가에서 송별하며 신신당부하신 말씀	澗邊送別丁寧語
돌이켜 생각하니 머리가 다 세게 하네	追憶令人白盡頭[17]

1562년(명종 17) 3월에 이황은 이정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당 나라 시인 劉商이 지은 시 한 수를 써주었는데 앞의 작품(①)이 그것이다. 후인들은 이를 기려 그 시를 도산서원 입구의 바위에 새겼다. 『교남지』에서도 이 고사를 소개하고 있거니와 이정 역시 여기에 차운하여 이황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기도 했다. 뒤의 작품(②)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서악서원 등에서 "龜翁[이정]이 서원을 세운 뜻 누가 알리오만, 계림의 잎사귀마다 風敎 소리 울리네."[18]

16)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산 중턱에 있던 바위의 이름이다. 지금은 안동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었기 때문에 도산서원 입구에 模刻해서 복원해 두었다. 『嶠南誌』에서는 "天雲臺 서쪽에 있다. 이황 선생이 여기서 이정을 전송하며 당 나라 시인 劉商이 쓴 「送王永」의 '그대 청산을 떠나면 뉘와 함께 노닐까.[君去青山誰共遊]'라는 구절을 써 주었다. 후인이 입석에 '석간대'라 새기고 시냇가 바위에 그 시를 아울러 새겼다."라 하였다.

17) 李楨, 「石澗臺」, 『龜巖續集』 권1.

18) 金誠一, 「題西岳書院」, 『鶴峯集』 권2, "誰識龜翁開院意, 雞林葉葉盡風聲." 이는 『龜巖別集』 권2, 「附

라고 하면서 이정이 남긴 유적을 찾아 그의 위업을 문학 작품을 통해 기리고자 했다. 이처럼 이정에 관한 문학적 전승은 주로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어 하나의 특징을 이룬다. 석간대를 비롯하여, 서악서원, 경현당, 임청대, 옥천서원, 대관대, 구암, 구계서원 등이 모두 그러한 곳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정에 관한 자료는 그 자신이 지은 창작 작품을 중심으로 매우 다채롭게 전해진다. 『구암전서』는 위에서 제시한 네 방향의 이정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이를 질서화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암전서』가 『구암집』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미처 수록되지 못한 자료들을 추가하는 등 정본화 작업을 병행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구암집』에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 잘못 들어온 것이 허다하다. 이를 텍스트 비평을 통해 바로잡는 것은 구암학 연구의 바탕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암전서』는 바로 이를 실천한 최초의 작업이다.

기존의 『구암집』에 빠진 이정의 작품들은 새롭게 발굴하여 '보유편'을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는 「臨淸臺追刻錄」, 朴雲(1493-1562)의 『龍巖集』에 수록되어 있는 「與李明府剛而書」, 丁熿(1512-1560)의 『游軒集』 등에서 새롭게 발굴한 7수의 시, 『구암집』에 없거나 차이가 있는 자료인 「居業錄要語識」, 「孔子通紀識」, 「唐鑑識」, 「醫無閭先生集跋」, 「皇明名臣言行錄跋」 등의 다양한 발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이 직접 쓴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가 편집하거나 간행한 25종의 서적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학에 기반한 조선 사회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꿈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그에게 있어 성리학 관련 서적을 간행하고 보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다. 그러나 간행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보다 용이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그 스스로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이 일을 수행하거나 南宮枕(1513-1567) 등 다른 관리들에게도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정의 이러한 노력 역시 구암학의 실천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 하겠다.

錄」「諸賢詩什」에도 함께 실려 있다.

3. 구암학 연구의 부진 원인

이정에 대하여 李宜顯(1512-1571)은 사천을 대표하는 인물로,[19] 李萬敷(1664-1732)는 침착하고 과묵하며 말과 웃음이 적은 인물[20]로 기록하고 있듯이, 이정에 대한 인물평은 역대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1902년에 중간본 『구암집』이 간행된 이래, 다소의 문제가 없지 않으나 그의 연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1994년 후손 李中喆의 『龜巖年譜』[21]에 의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구암학에 대한 근대적 연구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구암집』에 대한 텍스트 비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구암학 연구의 부진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진단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구암집』의 불완전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암집』은 세 차례 간행되면서 점차 작품 수가 늘어났으며, 그 규모는 6권 3책으로 확정되었다. 1641년(인조 19)에 원집 초간본을 간행하면서 허목이 지적하였듯이, 이정이 남긴 글은 대부분 제대로 갈무리가 되지 않아 훼손되거나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는 대체로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유실이고, 다른 하나는 왜곡이다. 유실은 사라진 자료이니 현재로는 거의 확인할 길이 없고, 왜곡은 자료의 보완과정에서 타인의 것이 잘못 편입된 것을 가리킨다.

자료의 유실 사례는 여럿 찾을 수 있으나 이정이 이황에게 보낸 편지가 대표적이다. 한 보고에 의하면, 이황이 이정에게 보낸 편지는 1553년(명종 8) 이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140여 통에 이른다.[22] 1552년(명종 7) 무렵에 이황이 成均館大司成, 이정이 成均館司成으로 같은 관청의 상하 관료로 근무하였는데,[23] 이황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이들 사

19) 李宜顯, 「陶峽叢說 一百四則」, 『陶谷集』 권28, "漆原則周愼齋世鵬, 山陰則吳德溪健, 泗川則李龜巖楨."
20) 李萬敷, 「退陶淵源筆帖跋」, 『息山集』 권18, "龜巖沉默寡言笑"
21) 李中喆, 『龜巖年譜』, 泗川文化院, 1994. 이 책은 주자의 「仁說圖」를 이정의 것으로 잘못 싣는 등 심각한 오류가 없지 않으나, 이정의 여러 사적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특기할만하다.
22) 황위주,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퇴계학과 유교문화』 47,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0. 김정만은 「구암 이정의 도학사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4, 133면에서 『退溪書集成』과 『陶山全書』, 그리고 『退溪文集』에 나오는 서간들을 비교 검토하여 146통이라 하였다.

이에 수많은 편지가 오갔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정이 이황에게 보낸 편지는 당연히 더욱 많았을 것이나, 현재 『구암집』에 전하는 이정의 편지는 4통에 불과하다. 이것마저 『퇴계집』에서 가져와 재구성한 것인데, 모두가 수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암집』이 속집(1749년), 별집(1902년)으로 확장되면서 이정과 관련된 자료가 보충되기는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 편입된 것도 적지 않았다.[24] 기실 이러한 문제는 원집에서부터 노정되었는데, 「戱贈白光勳」 등 6작품이 이정 작품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속집에는 더욱 확대되어 「贈四耐翁」 등 22작품이 그러하다. 특히 한시의 경우, 25편이 盧守愼의 『穌齋集』과 중복되고, 산문 3편 가운데 두 편의 기문은 尹春年의 것으로 추정되며, 서간 한 편은 李珥(1536-1585)의 것으로 추정된다.[25] 이밖에도 金忠甲(1515-1575)의 문집인 『龜巖集』을 이정의 『구암집』과 비교하면 29편이 중복된다. 이들 작품의 作者是非 역시 아직까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이정이 영남학파의 내적 갈등, 그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영남학파는 李珥와 成渾을 영수로 한 기호학파와 대칭적 의미를 지니면서, 李滉과 曺植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형성된 학파를 의미한다. 이황은 조식에게 편지로 千里神交라 하였고, 조식은 이황에게 편지로 百年神交라 하였다. 천리가 공간적 거리이고 백년이 시간적 거리이지만, 서로 '신교'라 하고 있으니 정신적 사귐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한 듯하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황은 조식에게 老莊에 병든 사람이라며 그의 학문에 잠복해 있는 이단성을 문제 삼았고, 조식은 이황에게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허한 학문을 한다면서 나무랐다.

---

23) 이정과 이황은 세 차례의 동료적 인연을 맺었다. 이정의 성균관 전적 후임을 이황이 잇기도 하였으며(1536년), 성균관 대사성과 사성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고(1552년), 홍문관 대제학과 부제학으로 각기 제수되기도 했다(1568년). 마지막의 경우, 이황의 홍문관 대제학 사임으로 인해 실제적인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24) 여기에 대해서는, 오보라, 「이정 『구암집』 수록 작품의 작자에 대한 재검토」, 『한문학보』 29, 우리한문학회, 2013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논의된 바 있다.

25) 두 편의 기문은 「觀頤堂記」와 「頤庵記」이며, 한 편의 서간은 「與宋頤庵」인데, 모두 宋寅에게 써 준 것이다.

26)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남명과 퇴계 사이』, 경인문화사, 2008, 161면 참조.

이정은 이황과 조식 사이를 오가며 학문을 논하거나 遊山을 즐기면서 둘 모두와 교분을 쌓았다. 1561년(명종 16)에는 만년을 보낼 계획으로 조식에게 부탁하여 덕산동에 몇 간의 와가를 짓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정의 아버지 李湛의 비문 사건이 일어난다. 이담이 1550년(명종 5)에 사망하고, 1560년(명종 15)에 追贈되는데, 이정은 아버지의 신도비명을 조식에게 받아 이황의 글씨로 세우고 싶었다. 이에 조식이 비문을 써서 이정에게 주자, 이정은 이황에게 그것을 보내 글씨를 위촉하면서 교정도 함께 부탁하였다. 이때 이황은, 조식의 문장에서 10곳 이상을 지적하며 文從字順이라는 원칙에 따라 수정한다.[27] 그러나 이정과 조식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글은 『남명집』에서 삭제되는 등 불운을 겪는다. 이 사건 이후 이황과 조식, 그리고 이정의 역학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진주음부옥으로 알려진 선조 초에 발생한 하종악 후처사건은 영남학파의 내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이정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황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이때 이황은 조식의 처신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식은 이정과 절교하게 된다. 한편, 조식은 이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모든 비난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이정의 배후에 있는 이황과 조정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퇴계학파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후 鄭仁弘(1535-1623)이 갑진본 『남명집』을 간행하면서 「跋南冥集說」을 써서 본격적으로 이황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열면서, 영남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심각하게 대립하는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셋째, 이정이 내외직을 두루 수행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문을 전할 기회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이래 육조의 참의와 홍문관 부제학 등의 내직은 물론이고 경주 부윤 등의 외직을 두루 거친다. 약 20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청주 목사, 경주 부윤, 순천 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선정비가 세워지기도 한다. 『경주읍지』에서 이정을 들어, "목소리와 안색을 변치 않아도 백성이 절로 교화되었

27) 장원철, 「남명의 碑誌文字에 대한 한 소고—李湛의 神道碑銘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1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2, 참조.

다. 학교를 일으켜 교육을 세우는 것을 첫 번째 임무로 생각하여 西岳書院을 세웠다. 士民이 오래도록 잊지 못하여 비석을 세워 공덕을 칭송하였다."[28]라고 한 것은 그 대표적이다.

『선조수정실록』 이정의 졸기에, "누차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문인들이 그를 龜巖先生으로 불렀는데, 祠宇를 세워 향사하였다."[29]라고 하고 있지만, 그의 이력에는 관료적 측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제자를 넉넉히 키웠다고 하기 어렵다. 현재 그의 문인으로는 姜公憲(1523-1583), 柳遲(1526-?), 邊士貞(1529-1596), 許介(1532-?), 鄭大濩(1538-?), 許思曾(1539-?), 朴晔(1540-1594), 鄭承尹(1541-1610), 鄭思翊(1542-1588), 成汝信(1546-1632), 孫曄(1546-1600), 安克家(1547-1614), 姜彦平(?-?), 姜愈(?-?), 兪軼(?-?), 鄭斗(?-?), 鄭仁平(?-?) 등 17인이 확인되지만, 이들이 구암학단을 이루며 스승의 학문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정이 만년에 벼슬을 버린 후 사천에 龜巖精舍를 짓고, 居敬齋와 明義齋를 동서에 두어 후진을 양성하였으나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학파적 결집을 보이지는 못했다. 사천의 柳遲와 인근 진주의 鄭斗 등이 없지 않았지만 이들의 노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1675년(숙종 1) 사천 출신의 白而章 등이 상소하여 구계서원의 賜額을 요청한 일이 있고, 1836년(헌종 2) 이황의 후손 李家淳이 시호를 요청하는 상소문을 쓰기도 하였지만,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결집은 크게 일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암학파가 결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넷째, 사천을 중심으로 이정의 역할을 부각시켰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은 퇴계학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황이 이정에게 보낸 편지는 140여통인데, 이것은 552통의 李鴻(1523-1583), 168통의 鄭惟一(1533-1576), 156통의 趙穆(1533-1576) 다음이다. 『陶山及門諸賢錄』에서

28) 『慶州邑誌』 권4, 「名宦・李楨」, "不動聲色而民自化, 以興學立教, 爲第一務, 創立西岳書院, 士民愈久不忘. 立碑頌德."
29) 『宣祖修正實錄』 宣祖 4년(1571) 3월 1일조, "累除官不就以卒(…)門人稱以龜巖先生, 立祠祀之."

도 309명의 제자들 가운데, 鄭之雲(1509-1561)과 李湛(1510-1575)에 이어 세 번째로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퇴계학파에서 선진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은 학파 내에서 강력한 문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柳成龍(1542-1607)과 金誠一(1538-1593), 그리고 鄭逑(1543-1620) 등의 후진 제자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이정은 사천의 만죽산 기슭에 靜觀臺를 설치해 曾點의 風乎舞雩 고사를 본받으려 하였고, 이황이 그 이름을 大觀臺로 고쳤다.[30] 그 아래 구암정사를 짓고 동서에 居敬齋와 明義齋를 두었는데, 이 또한 이황이 지어준 이름이었다.[31] 그러나 이정 스스로가 대관대라는 명칭을 쓴 것은 보이지 않고,[32] 『퇴계집』에 존재하는 거경재 등의 명칭도 1749년(영조 23)에 간행한 『구암집』 속집부터 비로소 등장한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78년 뒤의 일이다.[33] 이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이황에 대한 친밀의 강도가 더욱 강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정의 후손 및 사천의 유림들은 20세기 초인 1904년(고종 41)에 崔圭敏을 중심으로 大觀臺儒契會를 조직하여 이정의 학문을 이황과의 연관성 속에서 적극 추숭하고자 했다. 이황의 후광에 의지하여 이정을 적극 추숭하자는 의도였다. 이정의 靜觀臺가 이황의 명명에 따라 大觀臺로 수정되었음을 명확하게 하고, 거경재, 명의재, 不欺堂 등의 명칭 또한 이정이 이황으로부터 도통을 전수받는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34] 이들은 계안을 만들어, '異教가 가득하고 正學이 어두워진 때'[35]를 당하여 이정을 거슬러 올라가 퇴계학을 만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던 구계서원을 복원하

30) 이정, 『구암집』 권1, 「登靜觀臺」 주에 "퇴계 선생이 大觀臺로 고쳤다."라 하였다.
31) 초간본 「雨後來寓精舍」 주에서 "선생이 만년에 대관대 아래 서실을 지어 龜巖精舍라 편액하고, 동서쪽에 각기 거경재와 명의재를 두었는데 퇴계 선생이 이름을 지은 것이다."라 하였다.
32) 오언절구 「登靜觀臺」, 오언율시 「夏日登靜觀臺」, 칠언절구 「登靜觀臺」 등이 있다. 모두 '정관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밖에 「臺上種梧」라는 작품도 보인다.
33) 이에 따라 『嶠南誌』와 『泗川邑誌』 등에서는 이정의 유적에 대해 모두 이황과의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34) 이황은 「龜巖精舍」, 「居敬齋」, 「明義齋」, 「大觀臺」, 「不欺堂」이라는 시를 지어 이정을 격려하였다. 또한 이정이 꿈에 네 개의 '마음 심'자와 '때 시'자를 보고서 지은 절구를 보내오자 각각 운자를 써서 시를 지어 보내주기도 했다.
35) 崔圭敏, 「序」, 『大觀臺儒契案』, "異教充斥, 正學湮晦之時."

여 釋菜禮를 거행하고, 유계를 통해 이황과 이정을 기리는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36] 李忠鎬 등 이황의 종손 등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였으나, 근대의 도래라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구암학은 좀처럼 부각되지 않았다.

이정은 이황 및 조식과 함께 영남학파의 주요 일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이황과의 친밀도를 더욱 강하게 가지면서, 그의 학문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작품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전하는 『구암집』에는 타인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불완전성이 나타난다. 이정은 퇴계학파와 남명학파가 벌인 영남학파의 내적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또한 관직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을 충분히 기르지 못해 구암학을 구성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며, 한말로 내려오면서 이정을 퇴계학파의 주요 일원으로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구암학의 실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한국유학사에서의 역할

1904년 3월 16일, 崔圭敏은 「大觀臺儒契案序」에서, "선생은 일찍이 규암 송인수 선생을 사사하고 만년에 퇴계 선생을 좇아 마침내 대업을 성취하여 학문을 창도하고 가르침을 베풀어 백세에 아름다운 은혜를 끼쳤다."[37]라고 발언하였다. 20세기 초 이정을 중심으로 사천의 유학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발언이기는 하나, 송인수가 지닌 사림파에서의 위상이나 이황이 지닌 영남학파에서의 위상을 염두에 두면서 사천의 이정을 떠올린 것이다. 그는 특히 '盡誠尊衛', 이 네 글자[38]를 내어 걸고 한국유학사에서 일익을 담당한 사천의 선비 이정으로 이미지화 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이정은 구체적으로 한국유학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을까? 이것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적으로 그가 어떠한

36) 1912년에 이를 목활자로 인쇄하여 『大觀臺儒契詩集』이라 하였다.
37) 崔圭敏, 「序」, 『大觀臺儒契案』, "先生, 早師圭翁, 晩從退爺, 卒成就大業, 而倡學垂教, 嘉惠百世."
38) 崔圭敏, 「序」, 『大觀臺儒契案』, "特以盡誠尊衛四字, 敬告同志云爾."

학문을 추구하였는가 하는 것이며, 외적으로 그가 어떤 실천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누구와 함께 추구해 나갔는가 하는 것이다. 이 셋에 대한 탐색은 이정이 지녔던 학문적 문제의식과 함께, 그가 지닌 한 국유학사에서의 역할을 사회적 문제로 확장할 수 있었던 점을 확인하게 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첫째, 이정이 내적으로 中庸學을 통해 그의 학문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일찍이 趙絅(1586-1669)은 이정이 이황에게서 중용학을 전수받았다고 하면서, "공은 이 선생의 玄珠[도의 진수]를 얻었다고 할 만하다."[39]라고 하였고, 허목 또한 "내가 일찍이 퇴계가 남긴 서적을 읽어 보았더니, 제자와 문답하는 가운데 龜巖公이 운운하였다는 기록이 많았다. 퇴계 제자 중에 龜巖의 학문은 『中庸』을 깊이 전수받았고, 또 그가 옛것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즐겨 德溪 吳健(1521-1574)과 玉溪 盧禛(1518-1578)이 공의 祭文을 지어 함께 칭송하였다."[40]고 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정이 『중용』의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오언절구 14수를 지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가운데 한 수를 보자.

하늘이 부여하는 바가 명이요	天所賦爲命
사물에 부여되는 바가 성이라네	物所受爲性
도는 날마다 쓰는 일상 행동이요	道日用常行
교는 예악과 형정이라네	教禮樂刑政[41]

이 시는 「中庸詠」 14수 중 하나인 「命性道教」이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中庸』 首章의 "하늘이 命하신 것을 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教라 한다."[42]라는 구절을 염두에 두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구의 '賦焉'과 '命', 승구의 '物', 전구의 '日用'과 '常行', 결구의

39) 趙絅, 「龜巖集序」, 『龍洲遺稿』 권10, "公可謂得李先生之玄珠哉!"
40) 許穆, 「龜巖文集跋」, 『記言』 권80, "余嘗讀陶山遺籍, 其弟子答問, 多記龜巖公云云, 陶山弟子, 龜巖之學, 深得中庸之傳, 而又其好古嗜學, 吳德溪·盧玉溪, 作祭公文, 皆稱之."
41) 李楨, 「命性道教」, 『龜巖集』 권1.
42) 『中庸』 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教."

'禮樂刑政'은 모두 주자가 『중용』 수장을 주석하면서 제시한 용어들이다.[43] 이처럼 주자의 주석에 의해 『중용』을 해석하고, 이 책의 핵심개념인 '誠'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傳道之書로서의 가치를 고양하고자 했다.[44] 이와 아울러 '성'은 『대학』의 '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학문의 요체는 반드시 誠敬을 주로 한 연후에 그 학문이 精一하여 거짓이 없게 될 것'이라 설파하였다.[45]

둘째, 외적으로 성리서의 출간과 서원의 건립을 통해 실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중용학이 내적·학문적이라면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핵심 서적을 출간해 널리 읽게 하는 한편, 학교를 건립해서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정이 세상을 떠나자 선조는 사제문을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한 바 있는데, 여기서도 이 부분을 특별하게 기려, "서원을 세워 어진 이를 본받아 아름다운 기풍을 수립하였고, 여러 책들을 간행하여 후생을 깨우쳐 나아가게 하였네."[46]라고 하였다. 이 제문은 吳健이 지어 올렸고, 鄭彦信(1527-1591)이 禮曹正郎으로 치제하였다.

이정이 편찬하거나 간행한 서적은 도합 25종이다. 이 가운데 문학서 『三韓詩龜鑑』과 기념시집 『壽瑞詩』를 제외하면 모두가 성리서이다. 주희 편의 『延平問答』, 邵雍 찬의 『擊壤集』, 謝鐸 편의 『伊洛淵源續錄』 등 23종[47]이 바로 그

---

43) 이 시 전체는 『中庸』 제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教"의 朱子註에, "天(…)氣以成形, 而理亦賦焉, 猶命令也. 於是, 人物之生, 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日用事物之間, 莫不各有當行之路, 是則所謂道也.(…)謂之教也, 若禮樂刑政之屬是也."라 한 것을 참고하였다.

44)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앞의 논문(2003), 184-191면 참조.

45) 이정의 중용학에 대해서는, 정우락의 앞의 논문(2003), 이세동의 앞의 논문(2009), 이영호의 「구암 이정의 주자학과 경학에 관한 일고찰」(『대동한문학』 39, 대동한문학회, 2013) 등에서 두루 다루었다.

46) 李楨, 『龜巖集』 권2, 「賜祭文」(吳健), "建院象賢, 樹之風聲. 鋟梓羣書, 警進後生." 정두 역시 그의 「행장」에서 "表章理學, 嘉惠後學"이라 하였다. 성리서 출간과 서원 건립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47) 이 밖에, 『文公家禮儀節』(丘濬), 『文公朱先生感興詩』(朱熹), 『醫無閭先生集』(河欽), 『學庸章句指南』(胡謐), 『二程粹言』(程顥·程頤), 『孔子通紀』(潘府), 『唐鑑』(范祖禹), 『皇明名臣言行錄』(楊廉), 『居業錄』(胡居仁), 『程氏遺書分類』(程顥·程頤), 『程氏外書分類』(程顥·程頤), 『性理類篇』(李楨), 『景賢錄』(李楨), 『濂洛風雅』(金履祥·唐良瑞), 『朱子年譜』(李楨), 『朱書節要』(李滉), 『讀書錄』(薛瑄), 『朱子詩集』(朱熹), 『天地萬物論』(王柏), 『啓蒙傳疑』(李滉) 등이 더 있다,

것이다. 성리서 출간은 이정 혼자 감당할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이황은 물론이고 여러 고을의 관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정두는, "비록 한산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經傳에 도움이 될 만한데 판본이 없는 性理書를 보면, 또한 이웃 고을 수령에게 강력히 권유하여 반드시 간행하도록 한 뒤에 그만두었다."[48]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정의 성리학 보급 운동은 단순한 서적 간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역 선현을 받들며 이를 읽고 공부할 공간인 서원 설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역 유림의 저항과 비방을 무릅쓰고 이 일을 자임하였다.[49] 대표적인 사업이 西岳精舍와 玉川精舍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서악정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仙桃山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1560년(명종 15)에 경주 부윤 재임기간에 건립한 것이며, 옥천정사는 전라남도 順天市 玉川洞에 소재한 것으로, 1564년(명종 19) 순천 부사로 재임할 때 건립한 것이다. 특히 옥천정사는 1568년(선조 1)에 전라도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셋째, 중용학의 정립과 성리학의 보급에는 이황과의 동지관계가 작동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정이 퇴계학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황과 이정은 조선유학사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과 이황의 만남은 이정이 30세 되던 1541년(중종 36)에 榮川[영주] 군수로 부임하였다가 도산으로 이황을 찾으면서 이루어졌다.[50] 당시 이황은 성균관 사성으로 고향에 휴가를 와 있었다. 이정은 이황의 인품과 학문에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문을 구한다. 자신의 처신에 관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중용학이나 성리서 간행, 서원

48) 鄭斗, 「行狀」(『龜巖集』 권2), "雖在散地, 若見性理書可羽翼經傳, 而無板本者, 亦力勸傍邑守宰, 必使刊行而後已."

49) 이황이 지은 「李剛而新置西岳精舍, 有詩見寄, 次韻」(『退溪集』 권3)의 주에, "剛而, 因此營作, 多得譏."이라 하였다. 이는 주세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주세붕의 백운동 구상, 아름다움과 강함의 이중주—문성공 향사의 삽입 시가에 기반하여—」, 『한국선비연구』 6, 동양대 한국선비연구원, 2018을 참조할 수 있다.

50) 이정이 17세(1528, 중종 23)에 성균관에서 수업을 받으며 이황을 만났을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우관계를 형성한 것은 30세(1541, 중종 36)의 영천[주] 군수 시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1세(1552, 명종 7)에 성균관 사성으로서 대사성이었던 이황의 제자가 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건립 등에 대해서도 이황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 자료를 보자.

① 愼獨할 수 없는 사람은 事物이 아직 이르기도 전에 그 마음이 이미 먼저 스스로 혼란스러우니, 그래서 다시 未發인 때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戒懼와 謹獨을『中庸章句』에서는 두 가지 일로 나누었는데, 이 편지에서 구분 없이 말하였던 것은 動과 靜으로 상대시켜 거론하면 나뉘어 두 가지 일이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통괄해서 말하면 모두 하나의 일이 되어서입니다.[51]

②『淵源錄』전・후집을 한꺼번에 간행하여 배포하신다니 후학들의 다행입니다. 이 책의 발문은 병들어 나태하기도 하거니와 손가락질 받을 혐의가 두려워 아직 감히 짓지 못했습니다. 거듭 찾으시는데도 부응하지 못하여 부끄럽고 불안할 따름이니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二程粹言』의 발문도 사정이 이러합니다.[52]

③ 새로 玉川精舍를 지으셨다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현을 그리고 사모하는 기운을 더하게 합니다. 건물의 여러 이름은 마땅히 말씀하신 대로 편액의 글자를 써서 뒤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날씨가 추워 빨리 보낼 수는 없을 듯합니다.[53]

이정은 이황의 든든한 조력자였고, 이황은 이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다. 여러 문헌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듯이 이황과 이정은 함께 중용학을 중심으로 조선의 도학을 토착화시켜 나갔다. ①에서 보듯이『중용』의 戒懼와 謹獨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토론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학문 역량을 바탕으로 ②처럼『伊洛淵源續錄』이나『이정수언』등의 성리서를 간행하는 한편, ③처럼 옥천정사를 세워 선현을 모시고 도학을 강명하기도 했다. 이정은 이러한 일을 이황과 상의하면서, 때로는 이황에게 자문을 구하

51) 李滉,「答李剛而問目・朱書」,『退溪集』권21,“謂不能愼獨之人, 當事物未至之前, 其心已先自紛擾, 故無復有未發之時也. 且戒懼與謹獨, 中庸章句, 分爲兩事, 而此書無分別言之者, 以動靜對擧而言, 則分爲兩事, 以首尾統指而言, 則通爲一事.”

52) 李滉,「答李剛而」,『退溪集』권21,“淵源錄前後集, 一時刊布, 後學之幸也. 跋文, 病倦且實有畏於指目之嫌, 尚未敢作, 累索無應, 愧仄而已, 當更思之. 二程粹言, 亦同上耳.”

53) 李滉,「答李剛而」,『退溪集』권21,“新構玉川精舍, 令人想慕增氣. 諸名號, 皆當依示額字, 後當圖副, 亦以寒凍, 未必趁速耳.”

였고, 때로는 이황을 계발시키면서 조선의 성리학을 토착화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황이 이정을 통해 책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학문 정진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정의 서적 간행은 1554년(명종 9)부터 1566년(명종 21)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그가 청주 목사(1552.10-1556.1), 경주 부윤(1560.9-1563.1), 순천 부사(1563.11-1566.4)에 재임한 기간이었다. 성리서의 출간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지방의 관리로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모자랄 때는 인근의 지방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경상감사 南宮枕과 진주목사 金泓이다. 다음 자료에 이러한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 ① 금년 여름에 방백 南宮枕 공이 우리 고을을 순도하였는데 내가 月湖 楊廉이 분류한 정씨 兩夫子의 『遺書』 및 『外書』 약간 권을 가지고 가서 간행할 뜻을 아뢰니 공이 듣고서 즐거워하며 즉시 여러 고을에 간행 비용을 분담하게 하였다. 刻手를 모아 간행에 들어가니 겨우 한 달 만에 일을 마쳤다. 이에 남은 재물에 힘입어 이어서 『성리유편』을 간행하니 실로 상공이 후학에게 베푼 공덕이라 하겠다.[54]

> ② 이 문집[『醫閭文集』]과 『孔子通紀』, 『二程粹言』, 『伊洛淵源錄』, 『大唐文鑑』, 『皇明名臣言行錄』 등의 책을 가지고서 지금 관찰사인 南宮枕 공에게 아뢰어 여쭙고, 큰 고을에 나누어서 이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이 문집은 진양 목사[晋陽牧伯]인 金泓이 실제로 그 일을 감독하였다.[55]

①과 ②를 종합해 보면 경상감사 남궁침은 『정씨유서』, 『정씨외서』, 『성리유편』, 『공자통기』, 『이정수언』, 『이락연원록』, 『당감』, 『황명명신언행록』 등의 판각에 도움을 주었고, 진주 목사 김홍은 『의려문집』의 판각에 결정적

54) 李楨, 「性理遺編補錄跋」, 『龜巖別集』 권1, "今年夏, 方伯南宮公枕巡到弊府, 楨謹將楊月湖廉分類程氏兩夫子遺書外書若干卷, 稟之以刊行之意, 公聞而樂之, 卽分辦鋟棗之費于列邑, 鳩工入梓, 僅閱月而功訖. 於是, 獲賴餘資, 繼刊是編, 寔皆相公嘉惠後學之餘波也."

55) 李楨, 「跋」, 『醫無閭先生集』, "將是集及孔子通紀・二程粹言・伊洛淵源錄・大唐文鑑・皇明名臣言行錄等書, 稟告于今方伯南宮公忱, 分屬大官而監督之, 是集則晋陽牧伯金侯泓." 이 책은 일본의 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는데, 현재 이 발문은 『구암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인 도움을 주었다. 이밖에도 이정의 성리서 발간에 지지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청주에 유배를 와서 이정과 함께 도의로 사귀었던 金忠甲(1515-1775)이 바로 그다. 그는 『朱文公家禮儀節』과 『朱夫子感興詩』의 발문을 써서 이정의 작업을 격려하며 성심을 다해 도왔다. 이처럼 이황은 물론이고 인근의 관료들은 이정의 성리서 간행 사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이는 한국유학사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宣祖修正實錄』 1571년(선조 4) 3월 1일조에 기록된 이정의 졸기에, "이정은 어릴 때부터 도학을 좋아하였는데, 만년에 더욱 독실하여 李滉을 師友로 삼고 經術을 보좌하였다. 관직에 있을 때는 학교를 일으켜 斯文을 돕는 것으로 자신의 책무를 삼았다."[56]라고 했다. 성리서 간행과 보급을 추가하면 그가 조선유학사에 끼친 영향을 모두 언급한 셈이다. 中庸學으로 도학을 추구하고, 이러한 이념을 성리서 출간과 서원 건립으로 실천하였다. 특히 이황과의 동지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것이 가능하였는데, 인근의 지방관들도 이정의 작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 일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면 이정이 이황과 함께 벌인 사업이 유학사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가. 다음 장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5. 이정이 이룩한 성과 및 의의

성리학은 자신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해 갔는가. 도통론[57]의 성립은 이 질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闢異端의 논리로 이 문제는 치열성을 더하였다. 주자 성리학의 경우, 道佛 등 유학 외적인 학문 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주자학과 양명학의 경우처럼 유학 내적인 학문 체계에서도 정통과 이

56) 『宣祖修正實錄』 宣祖 4년(1571) 3월 1일조, "楨, 自少好道學, 晩而尤篤, 師友李滉, 羽翼經術, 居官以興學右文爲己任."

57) 유학에서의 도통론은, 공자와 맹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가르침의 전수계통에 관한 학술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학문을 宗統과 傍系, 혹은 正統과 異端으로 구분 짓는 주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孟子와 韓愈, 그리고 주자학의 도통론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한정길, 「儒學에서의 正統과 異端—朱子學的 道統論에 대한 陽明學의 대응을 중심으로—」, 『율곡사상연구』 21, 율곡학회, 2010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졌다.

단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조선의 경우 여기서 더욱 나아가 주자학 내부에서 다시 정통론 시비가 일어났다.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들 각 학파 내에서도 정통론 시비는 지속되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자학파의 학문적 자부심과 도통의 계승 의식은 양보할 수 없는 일대 자존심의 대결이기도 했다.

한유는 「原道」에서 도불의 이단성을 비판, 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맹자를 제시하면서 공자 이후의 도통 계보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공자→증자→자사→맹자가 그것이다. 이 생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주희는 공자의 『논어』, 증자의 『대학』, 자사의 『중용』, 맹자의 『맹자』, 즉 四書를 성립시켜 집주를 가하였다. 특히 요가 순에게 전한 '允執厥中'을 주목하면서, '中'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였다.[58] 도통의 내용이 내적으로는 人心과 道心 사이에서 精一의 문제로, 외적으로는 過와 不及이라는 事上間의 문제와 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자가 『중용』을 傳道之書로 특별히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조선은 중국과 달리 주자 성리학을 더욱 강화시켜나갔다. 15세기의 경우 『소학』을 중심으로 쇄소응대의 실천 성리학이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립된 것이 기대승의 『論思錄』에 전하듯이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통의 계보이다.[59] 사화를 거치면서 정치적 상황이 안정기에 들어가자, 『중용』을 중심으로 한 道問學과 尊德性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조선 도통의 계보가 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도학을 밝힘으로써 문묘에 종사된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등 東方五賢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들의 학문 성향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도학을 천명하며 새로운 한국유학사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동일하다.[60]

---

58) 이 때문에 蔡沉은 『書經集傳』 序를 통해, "精一執中은 요, 순, 우가 서로 전한 심법이요, 中을 세우고 極을 세움은 상의 湯王과 주의 武王이 서로 전한 심법이다."라고 할 수 있었다.

59) 奇大升은 『論思錄』 下, 初7日 條에서, "以夢周爲東方理學之祖, 吉再學於夢周, 金淑滋學於吉再, 金宗直學於淑滋, 金宏弼學於宗直, 趙光祖學於宏弼, 自有源流也."라고 하였다.

60) 이정은 선산 부사로서 길재의 불사이군의 절의를 높이며 그의 사당을 수리하였으며, 김굉필을 도학의 종사로 보아 『경현록』을 편찬해 간행하는 한편, 옥천정사를 설립해 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황과 함께 서원 건립 운동과 성리서 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일찍이 李萬敷(1664-1732)는 우리 동방의 道學 전수가 고려 말에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김굉필과 정여창은 궁행하고 수신하였으나 제자를 기르지 못했고, 조광조와 이언적은 도학을 조금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큰 죄에 얽히고 말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조선의 도학은 이황에 이르러 그의 오랜 공부 공력으로 인해 성취한 바가 컸고, 특별한 근원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이는 도학을 바탕으로 한 퇴계학단의 성립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어갔다.

> 月川[조목]은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배웠는데, 문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선배 격인 高峰[기대승]은 선생을 만난 것이 조금 늦었으나, 선생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 강마한 것이 가장 성대하였다. 德溪[오건]는 山海[조식]의 문하에서 나왔으나, 선생께서 그 소박·건실하며 간절·독실한 것을 허여하셨다. 그 다음 龜巖[이정]·藥圃[정탁]·錦溪[황준량]·栢潭[구봉령] 여러분들은, 혹은 문장과 학문으로, 혹은 품행과 도의로 칭송받았다. 西厓[류성룡]나 鶴峰[김성일] 같은 분들은 가장 후배이며, 동시에 배출되었다. 또한 東岡[김우옹]과 寒岡[정구]이 있으니, 그들도 늦게야 입문하였다. 栗谷[이이]은 문하에 이르러 한 번 절하고 돌아갔으나 가장 저명하였다.61)

이만부는 퇴계학단에서 이황의 도통을 전수받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조목, 기대승, 오건, 이정, 정탁, 황준량, 구봉령, 류성룡, 김성일, 김우옹, 정구, 이이를 들었다. 이들은 모두 조선의 도학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스승 이황을 중심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대승의 학문이 왕성하다고는 하였지만, 선진 제자로서 이황과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한국유학사를 사회적 측면에서 새롭게 한 사람으로 우리는 단연 이정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중용학을 바탕으로 도통의 정수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조선 땅에 펼치기 위해 스승 이황과 함께 성리서를 출간하거나 학교를 건립하면서 조선의 유학사를 새롭게 확립해 나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정이 지

61) 李萬敷, 「退陶淵源筆帖跋」, 『息山集』 권18, "月川自少從先生學, 於門人年最長, 先進高峰, 遇先生稍後, 然先生所與往復相講最盛. 德溪出自山海門下, 然先生許其朴實懇篤, 其次龜巖・藥圃・錦溪・栢潭諸公者. 或以文學或以行誼稱, 如西厓・鶴峰, 最後進而同時出者, 又有東岡・寒岡, 亦晩而及門. 栗谷, 一拜門下而歸, 然最著焉."

닌 두 가지의 성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정이 스승 이황과의 도학 담론을 통해 직접 도학을 전수받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퇴계의 도통을 이은 대표적인 제자로 류성룡, 김성일, 정구를 든다. 이만부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들은 모두 이황의 만년 제자인데, 일정한 학단을 형성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류성룡은 퇴계 학단에서 가장 높은 벼슬로, 김성일은 안동 지역의 학문적 구심체로, 정구는 류성룡과 김성일이 세상을 떠난 후 영남을 대표하는 학자로 부각된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황과 함께 도학 담론을 하면서 도통을 세우고자 했던 인물로 우리는 이정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그는 이황의 중용학을 이어받았다. 『중용』을 통해 傳道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황은 그 스스로가 『中庸釋義』를 찬술하고, 그의 제자 李德弘(1541-1596)은 스승과의 학문적 토론을 『中庸質疑』에 갈무리하기도 했다. 이정 역시 "모든 현상이 한 근본이라는 이치가 분명하니, 사방 한 치 마음이 바로 이 천리라네. 어둠 속에 색실을 누가 알아차릴까? 예로부터 자득함은 오직 精하고 專한 데 달렸다네."[62]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자득은 바로 정일한 데 있다'고 하면서, 『중용장구』 서문에서 주자가 전한 요순의 심법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다음 작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로 전해 온 중이란 한 글자	相傳一箇字
수많은 성인의 심법이었네	千聖之心法
높지 않고 또 멀지도 않지만	非高亦非遠
정일해야 진실로 잡을 수 있네	精一能允執[63]

이정은 「중용영」 14수를 짓고 그 서문에서, "하나의 사물을 두고 말하자면, 사물은 반드시 이 마음[心]이 있고, 이 마음이 있은 이후에 일[事]이 있으니, 마음을 성실하게 하면 도는 절로 실행된다."[64]라고 했다. 그리고 그 첫

62) 李楨, 「偶吟」, 『龜巖集』 권1, "萬殊一本理昭然, 方寸中間卽是天. 暗裏色絲誰認取, 從來自得在精專."
63) 李楨, 「中庸詠・中」, 『龜巖集』 권1.

째 수가 「中」인데 위의 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그는 '중'이 바로 요순 우탕으로부터 전해 오는 心法이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允執厥中'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일상성의 道라 생각했다. 전구에서 말한 "높지도 않고 또 멀지도 않"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심법을 밝히기 위하여 이정은 이황으로부터 특별히 중용학을 배웠던 것이다. 趙絅이 『구암집』 서문에서, "퇴계 선생 문하에 머리를 굽혀 친히 『中庸』을 전수받았다."[65]라고 한 발언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요순으로부터 전해지는 심법이 공맹을 거쳐 송 대 및 원명 시대로 내려오면서 다양한 학자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조선조 성리학자들에게 그 맥이 닿으면서 조선의 도통이 성립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여기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정은 이황에게 자문을 받아가면서 성리서를 편집·출간하였고, 도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였던 것이다. 16세기의 도통 확립 과정에서 이황이 가장 힘써 수행하였던 일이 이 두 가지 일임을 감안 할 때, 이황과 이정은 조선 도통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굳건한 동지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도학의 조선적 토착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정이 편찬·간행한 서적을 살펴보면 이를 바로 알 수 있다. 도통의 확립이라는 안목 속에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이 편집 간행한 서적 25종 가운데 송·원·명 대의 도통을 밝힌 성리학자들의 언행록류가 가장 많다. 중종 대의 金安國이 송 대의 성리서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고, 명종 대에 이르러 이정은 이황의 자문을 얻어 이들 책을 적극적으로 간행·보급하였던 것이다. 『延平問答』, 『伊洛淵源錄』, 『伊洛淵源續錄』, 『皇明名臣言行錄』, 『皇明伊洛名臣言行錄』, 『二程粹言』, 『程氏遺書』, 『程氏外傳』, 『朱子實記』, 『朱子年譜』 등이 대체로 그러한 서적들이다.

성리학자의 언행록류는 명 대 주자학자의 것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방

64) 李楨, 「中庸詠序」, 『龜巖集』 권1, "就一物上說, 物必有是心, 有心後有事, 實心道自行."
65) 趙絅, 「龜巖集序」, 『龍洲遺稿』 권10, "屈首李先生之門, 親受中庸之傳."

면의 서적들은『薛文淸讀書錄』,『醫無閭先生集』,『孔子通紀』,『胡敬齋居業錄』등이다. 이밖에도 소옹의『擊壤集』, 주희의『朱子詩集』, 金履祥(1498-1576)의『濂洛風雅』등 도학적 분위기 속에 창작된 시문학 작품을 모아 간행하기도 하고,『경현록』을 편찬하여 김굉필을 필두로 한 조선의 도통적 맥락을 확실히 하기도 했다. 사림파 속에서 성장한 도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이정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그는 오로지 조선을 도학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읽어 보자.

> 堂號를 景賢이라 이름한 것은 寒暄先生의 道를 추모함이었고, 계단 아래 閣을 세운 것은 梅溪의 글을 판각[圖刻]하기 위함이었다. 훗날 이 堂에 오르고 이 臺에 오르는 자가 당시의 일을 추억하면서 世道의 盛衰를 관찰한다면, 그 누군들 팔을 걷어붙이고 가슴을 치면서 천년 뒤에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옛사람이 이른바 '바로 하늘에 호소하고자 하여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구나.66)

이정은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김굉필의「家範」과「行狀」,「議得」등의 글을 얻어『경현록』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황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이황은 金立과 鄭逈壽(1538-1602) 등의 기록을 추가하고, 또한 전반적으로 수정을 가하여 定本을 만들어 이정에게 간행케 하였다. 아울러 이정은 순천에 경현당을 지어 김굉필의 도학을 추모하고, 齋閣을 세워 조위를 함께 기렸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이황이 김굉필을 비롯하여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을 문묘에 종사하고자 했던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가 경주부윤으로 서악정사를 건립했던 것도 기실 도학을 강명하기 위함이었다. 다음 시에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난다.

성인의 몇 말씀 전해진 뒤로	虞家數語相傳後
만고토록 사문이 백일처럼 환해졌네	萬古斯文白日明

66) 李楨,「景賢錄識」,『龜巖集』권1,"名堂以景賢者, 追慕寒暄先生之道也. 立閣于階下者, 圖刻梅溪之文也. 後之登斯堂陟斯臺者, 追憶當時之事, 以觀世道之升降, 則其誰不扼腕拊胸, 繼之以淚於千載之下乎? 古人所謂直欲籲天而無從者, 其在斯歟, 其在斯歟!"

단번에 이해한 증삼은 마음속으로 계합했고	一唯參乎心默契
거듭 칭찬한 안회는 도가 다시 형통했네	再賢回也道重亨
동락의 화창한 바람은 종용한 뜻이요	光風東洛從容意
서림의 가을달은 감개한 정이로다	秋月西林感慨情
벗들이여, 여기 수행할 땅이 있으니	會友琢磨今有地
시습당 그 이름 정녕 저버리지 마소서	丁寧無負此堂名[67]

이 작품은 이정이 서악정사에서 지은 것이다. 정사에는 誠敬齋, 時習堂, 詠歸樓, 澡雪軒 등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습당에 대하여 쓴 것이다. 이 작품 기구에서 말한 '虞家數語'는 『서경』「大禹謨」의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고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그 중도를 잡아야 한다."[68]는 것으로 주희 등 송유들이 이를 두고 堯·舜·禹가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 16字心傳이라 한 바로 그것이다. 즉 도통의 연원을 밝힌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도맥이 이정은 증삼과 안연, 光風霽月의 주돈이, 秋月寒水의 주희로 전해지면서, 동토인 경주 서악에서 비로소 그 맥을 잇는다고 했다. 시습당을 제시한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였다.[69]

조선조 선비들은 요순이 전한 심법이 공맹과 주자를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진다고 생각했다. 이정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사우 관계에 있었던 그는 이황과 함께 조선의 도통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중용』을 傳道之書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성리서를 간행·보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를 세워 조선 땅에서 도학을 진흥시키고자

67) 李楨, 「二月三十日, 西岳精舍有作」, 『龜巖續集』 권1. 이에 대하여 이황은, "기자가 동방을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지금까지 천운이 문명에 속하였네. 많은 인재 성인 되려면 바탕이 있어야 하니, 지극한 도도 실천해야지 어찌 절로 형통할까. 휑뎅그렁한 묵은 책에서 보결을 찾으려면, 호걸들 분발하여 常情을 넘어야지. 신선 사는 경내에 선비들의 집 활짝 열렸으니, 늙은 나도 珍名에 걸맞기를 생각하네[箕教吾東曾善國, 至今天步屬文明. 多材聖作非無本, 至道人行詎自亨. 寥落塵編尋寶訣, 奮興豪傑出常情. 儒宮好闢仙山境, 老我曾思實珍名.]"라며 차운하였다.

68) 『書經』, 「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69) 여기서 더욱 나아가 『慶州邑誌』 권4, 「학교」 조에서는 도학이 설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즉 설총에 대한 축문에서, "남겨진 경서를 처음으로 전하여, 도학이 동방에 생겨났네. 몽매한 이에게 영세토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공덕을 잊을 수 있을까[始傳遺經, 吾道乃東. 開蒙千古, 可忘其功.]"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했다. 특히 이황이 조선 도학을 생각하면서 벌인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등에 대한 문묘 종사 운동과 『경현록』을 편찬하여 김굉필의 도학을 높였던 점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김굉필→이언적→이황→이정으로 이어지는 도맥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경이 이정을 들어 '이황의 玄珠를 얻었다'라고 한 표현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6. 맺음말

이 글은 구암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범위와 이정이 한국유학사에서 던진 문제의식 및 그 실천 등을 두루 다룬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유학사에서 잊혔거나, 거의 잊힐 뻔한 이정을 우리 시대로 다시 소환하여 그에 대한 학술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이정이 영남학파의 주요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그의 문집에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 대거 들어와 있는 등 불완전성을 보인다. 또한 이정은 퇴계학파와 남명학파가 벌인 영남학파의 내적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으며, 제자들을 충분히 기르지 못해 구암학을 구성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 그는 분명 영남학파의 주요 일원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였으나 한말까지도 그의 역량은 거의 부각되지 못했다.

이정은 이황과 함께 중용학을 바탕으로 도학을 추구하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20여 종의 성리서를 출간하였고, 서악정사와 옥천정사를 세워 존현양사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할 때는 남궁침 등 주변의 관리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조선의 지성사는 이로써 새로워질 수 있었으며, 도통 역시 명확해질 수 있었다. 즉 요순이 전한 심법이 공맹과 주자를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져, 김굉필→이언적→이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였던 것이다. 이황과 이정의 사우관계가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니 이황의 도통은 이정에게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가순이 이정을 들어, "퇴계淵源의 的傳이요, 儒林의 宗匠"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결론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퇴계

학파 내의 위상 조정에 대한 정치한 논의가 요청된다. 황준량의 전언에 의하면, 이황 스스로는 자신의 학단에서 기대승과 이정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누가 학문에 능한지를 묻자 이황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기대승과 이정 같은 사람은 어떤가 하고 다시 묻자, 이에 이황은 "이들은 重厚하고 仁에 가까워 길을 따르고 궤도를 지켜서 반드시 끝까지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所見이 아직도 큰 강령을 터득하지 못하였으니, 이 점이 안타깝다."[70]라고 했다. 이처럼 이황은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지만 퇴계학단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대승과 이정을 꼽았던 것이다.

황준량이 스승 이황의 생각을 전하자, 정인홍은 조식과 결별한 이정과 함께 황준량을 맹비난하였다. "시속을 좇아 세력에 붙고 이익을 탐하여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며 시종일관 權姦의 문객이 되어 맑은 논의에서 버림을 받은 이정과 황준량 같은 약간의 무리들을 도학으로 허여하기도 하고 성현으로 기대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왕복한 편지가 쌓여 책을 이루었다."[71]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李種杞(1837-1902)는 孔門에는 자로가 있듯이 退門에는 이정이 있다고 하면서, "성냄이 없고 迂闊함이 없으며 독실하게 믿고 깊이 깨우침은, 자못 그[자로]보다 나았다."[72]고 평가한다.

기대승이 『논사록』에서 이론적으로 정몽주 이하 조선의 도통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정이 성리서 및 『경현록』을 출판하고 옥천정사를 지어 도학을 실천으로 옮긴 것은, 퇴계학단뿐만 아니라 한국유학사의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풍부한 제자를 길러 이를 계승하게 하지 못한 것은 이정에게 있어 치명적인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이황의 학통은 제자를 길러 학단을 형성했던 김성일, 류성룡, 정구에게로 흘러

---

70) 李德弘, 「溪山記善錄(下)」, 『艮齋集』 권6, "此人厚重近仁, 而循途守轍, 必終不回頭, 向別處去, 但所見猶未能透得大綱領, 這可惜耳."

71) 『光海君日記』 권39, 1611년 3월 26일조, "至於趨時附勢, 嗜利無恥, 終始爲權姦之門客, 淸議之所棄, 如李楨, 黃俊良等若干輩, 或許以道學, 或期以聖賢, 往復簡書, 積成卷軸."

72) 李種杞, 「李龜巖先生文集重刊跋」, 『晩求集』 권11, "如子路之於夫子, 而無慍無迂, 篤信而深喩之, 則殆過之矣."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이황의 선진 제자로서 이정이 퇴계학단 내에서 수행한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복원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둘째, 성리서를 통해 조선의 문풍을 개선하고 이로써 풍속을 교화시키고자 했던 그의 사업을 검토해 보는 일이다. 이정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젊은 시절부터 어득강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시사 받은바 적지 않았으나, 20세가 채 되기 전에 송인수를 스승으로 섬기면서 사림파적 학문 성향을 깊이 체득하게 된다. 송인수는 1534년(중종 29) 濟州牧使로 좌천되자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탄핵을 받아 사천으로 유배되었는데, 이 시기에 이정이 그의 문하에 출입하였던 것이다. 이후 1537년(중종 32)에 金安老(1481-1537)의 세력이 몰락하자 1538년(중중 33)부터 禮曹參議兼成均館大司成으로 후학들을 길렀다. 성균관 대사성으로 당대의 학문을 주도했던 송인수의 뒷자리를 훗날 이황이 이었고, 이정 역시 성균관 典籍, 直講을 거쳐 司成이 되어 학문을 주도했다.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송인수→이황→이정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흐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한 주세붕과 이정이 사승 관계를 맺고 있다는 측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성균관 이력을 생각하며, "돌아보건대 둔하고 못난 나는, 일찍이 생활을 함께하였네. 청년 시절 성균관에서는, 공부에 얼마나 도움을 받았던가."[73]라고 하거나, "약관의 나이에 남방에 뛰어나서, 성균관 유학에 명성이 진동하였다."[74]라고 하면서 성균관에서의 활약을 특기하였다. 성균관이 문묘에 공자를 모시고 조선 시대 유학 교육을 맡아보던 곳임을 생각할 때, 그의 성균관 이력은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송인수→이황→이정으로 이어지는 성균관 학맥은 그로 하여금 다양한 성리서를 출간하면서 尊賢養士의 서원 건립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논의한 이정의 성리서 출간과 서원 건립은

73) 宋贊, 「祭文」(『龜巖集』 권2), "顧惟駑劣, 夙承雅履. 靑年魯泮, 幾資麗澤."
74) 盧禛, 「挽詞」(『龜巖集』 권2), "弱冠翹南服, 聲名動北遊."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스스로 서악정사에 시를 지어 "천년의 땅 경주 풍속 예전과 달라져, 한낱 우활한 선비도 마음이 감화되네."[75]라고 하였듯이, 그는 교육을 통해 학문과 도의를 숭상하는 순후한 풍속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가 편찬한 성리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즉 그가 설립한 서악서원이나 옥천서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황의 도산서원이나 정여창의 남계서원, 그리고 정구의 무흘정사 장서각 등에서 그가 편찬한 서적이 어떻게 활용되었던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정이 조선의 학문 풍토를 쇄신시키면서 풍속 교화에 애썼던 측면이 구체적인 부면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정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시도해 보는 일이다. 이 부분은 사천의 龜巖・龜溪書院・大觀臺, 순천의 景賢堂・玉川書院・臨淸臺, 경주의 西岳書院, 안동의 石澗臺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에는 이정이 스스로 지은 시문이 있기도 하지만, 후인들의 상상력 속에서 이정이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어 흥미롭다. 순천의 경현당과 임청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新增昇平志』 등에 전하고 있듯이, 이 유적은 조위와 김굉필의 유적인 바, 임청대에는 이황의 글씨가 돌에 새겨져 있다. 이러한 사정을 생각하면서 裵齡聃(1537-1611)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여기 경현당을 세운 것이 언제였던가	何年創此景賢堂
명승에 임청대라 새긴 글씨 분명하네	名蹟淸臺石字詳
병들어 先考의 뜻을 잇지 못하고서	臥病未承先考志
고향에서 그대를 마주하니 도리어 부끄럽네	對君還愧世居鄕[76]

이 작품은 1616년(광해군 8) 경현당을 중수한 후 배영담이 許鍵과 鄭之推에게 준 것이다. 당연히 김굉필, 조위, 이황, 이정 등 다양한 선현들이 다시 소환되면서, 배영담 등 당대의 선비들과 공간을 공유한다. 이러한 류의 작품들은 鄭甲鎬, 許珣, 尹根壽, 金鏞柱, 李榮憫, 張萬烈), 鄭曼榮, 趙泳薰, 張學鍾, 申

75) 李楨, 「二月三十日, 西岳精舍有作」, 『龜巖續集』 권1, "千年大地俗非古, 一箇迂儒心似薰."
76) 裵齡聃, 「景賢堂重修」(『昇平續誌』)

喆休 등 매우 다양한 작가들에게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같은 공간에서 작가들이 무엇을 노래하였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훨씬 나아가 각 공간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형태의 유교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향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 역시 남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역『구암전서』발간에 즈음하여, 구암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범위와 구암학 연구의 부진 원인, 한국유학사에서 이정이 수행한 역할, 이정이 이룩한 성과 의의, 새로운 과제 등을 두루 논의하였다. 이정이 한국유학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에 대해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조선의 유학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정의 학문은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하고, 그가 이룩한 업적 역시 재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바로 이 점에서 본 논의는 구암학 연구의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慶州邑誌』
『光海君日記』
『嶠南誌』
『書經』
『宣祖修正實錄』
『昇平續誌』
『中庸』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奇大升, 『論思錄』
金誠一, 『鶴峯集』
李 楨, 『龜巖集』(초간본, 1641년 간본)
李 楨, 『龜巖續集』(초간본, 1749년 간본)
李 楨, 『龜巖集』(중간본, 1902년 간본)
李 滉, 『退溪集』
李德弘, 『艮齋集』
李萬敷, 『息山集』
李宜顯, 『陶谷集』
李種杞, 『晩求集』
趙 絅, 『龍洲遺稿』
曺 植, 『南冥集』
崔圭敏, 『大觀臺儒契案』
許 穆, 『記言別集』
洪仁祐, 『恥齋遺稿』

김정만, 「구암 이정의 도학사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4, 1-157면.
李中喆, 『龜巖年譜』, 泗川文化院, 1994.
오보라, 「이정 『구암집』 수록 작품의 작자에 대한 재검토」, 『한문학보』 29, 우리한문학회, 2013, 41-76면.
이상필, 「龜巖 李楨의 學問 標的—「神明舍賦」의 분석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7, 263-285면.
이세동, 「구암 이정의 중용학」,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265-300면.
이영호, 「구암 이정의 주자학과 경학에 관한 일고찰」, 『대동한문학』 39, 대동한문학회, 2013, 357-379면.
장원철, 「남명의 碑誌文字에 대한 한 소고—李湛의 神道碑銘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1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2, 2-61면.
정우락, 「龜巖 李楨 연구의 반성적 모색」,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3, 51-82면.

_____, 「주세붕의 백운동 구상, 아름다움과 강함의 이중주—문성공 향사의 삽입 시가에 기반하여—」, 『한국선비연구』 6, 동양대 한국선비연구원, 2018, 35-58면.
_____, 「『中庸』이 구암 이정의 문학에 미친 영향」,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_____, 『남명과 퇴계 사이』, 경인문화사, 2008, 171-212면.
한정길, 「儒學에서의 正統과 異端—朱子學的 道統論에 대한 陽明學의 대응을 중심으로—」, 『율곡사상연구』 21, 율곡학회, 2010, 62-100면.
황위주,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퇴계학과 유교문화』 47,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0, 309-341.

【Abstract】

The Scope of Materials in Guam (龜巖) Leejeong (李楨) Study and His Roles in the History of Confucianism in Korea

Jeong, Woo-Lak*

This study aims to provide specific explanations about the scope of materials for the research of Guam studies and the roles of Guam Lee Jeong in the development of Confucianism in Korea on on the occasion of Guamjeonseo's publication in Korean.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d Lee Jeong's materials with a focus on Guamjip and dealt with the causes of poor efforts in the research of Guam studies, Lee Jeong's roles in the history of Confucianism in Korea, and his efforts for the establishment of Dotong (道統) based on them. It was an attempt to reinstate him into the academic history by summoning him, who was almost forgotten or about to be forgotten in the history of Confucianism in Korea, to the contemporary times.

Lee Jeong published approximately 20 Neo-Confucian books to pursue moral philosophy based on Jungyong studies with Lee Hwang and spread it across the society and took the lead in worshiping great scholars by setting up Seoyak and Okcheon Seowons. His efforts made the history of intelligence in Joseon anew finally and Dotong clear. In other words, they demonstrated that Simbeop delivered by Emperors Yao and Shun was inherited by Confucius, Mencius, and Zhu Xi and transmitted in Joseon by Kim Goingpil, Lee Eon-jeok, and Lee Hwang. People believed that Lee Hwang's Dotong was transmitted to Lee Jeong based on their profound colleague relations.

There is a need to adjust Lee Jeong's status in the Toigye School. Lee Hwang sent approximately 140 letters to Lee Jeong and placed him in the third spot after Jeong Ji-woon and Lee Dam among his 309 pupils in Dosangeupmunjaehyeonrok. This shows that Lee Jeong was one of the advanced pupils in the Toigye School and formed academic comrade relations with Lee Hwang. Furthermore, Lee Hwang himself considered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

Gi Dae-seung and Lee Jeong as very important figures in his learning group, saying that they were dignified and close to benevolence and made it sure that they would take the same path by following a path and sticking to a track. Taking these circumstances into account,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shed new light on Lee Jeong.

Keywords: Guam Lee Jeong, Guamjeonseo, Guam studies, Lee Hwang, Toigye School, status, academic history, Jungyong studies, Publication of Neo-Confucian book, establishment of a Seowon.

접수일: 2022.03.31.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12.